

^~^ 햇살 좋은 집 하은·신우네 (2022년 9월호)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고전 3:6, 7)”

♣ 이곳 모습



사진 1. 난민교회(CCF) 긴급식량 지원

♣ 감사

1. 오랑아슬리 정글원주민들이 소형 양어장(養魚場)을 시작하고, 고무나무 재배를 확대해 감사
2. 2년간 신장결석의 고통으로 거동을 못했던 난민형제가 신장결석 제거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함에 감사. 미얀마 난민교회에 쌀, 식용유를 지원함에 감사. 익명의 후원자분, 필마트 이장로님, 뉴질랜드 다니엘선교센터에 감사
3. 아내 이보배선생이 2년 만에 부신피질 부전 추적검사와 진료를 위해 귀국함에 감사. 처남 가정의 딸 이민하(신생아)가 수술후 건강하게 퇴원함에 감사

♣ 함께

4. 오랑아슬리(Orang Asli) 원주민교회 성도들의 생활과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장단기계획과 필요들이 순적이 진행되도록
5. 난민 맹인청년의 장애인등록과 재활훈련, 뇌성마비아동의 교육과 물리치료, 대두증아동의 수술 등에 돕는 손길이 연결되도록, 난민에 대한 장기적인 교육 및 지원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한국의 환율이 안정되도록
6. C국의 BAM인 샤론카페교회, NGO 愛心慈善이 본토화 됨에 감사. 장애인캠프, 재난/지진 봉사활동, 도시빈민사역, 자원봉사자훈련, 어린이교육 등의 여러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 하은 (24세) & 신우 (15세)

7. 하은, 진학관련 서류, 면접을 잘 준비하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한 은혜와 기쁨 가운데 생활하도록
8. 신우, 중3과정이 시작되었는데 체력, 학업, 신앙적인 면에서 성장하도록

♣ 정글 원주민들과의 동행을 위해서

협력하는 말레이시아(華人) 현지교회(9MCLC)의 설립 64주년 기념행사에 초청되었다. 두 달에 한두 번 정도의 설교와 선교관련 사역에 동역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다인데 귀빈으로 대해주니 감사하다. 지난번 원주민지역 방문 때 만났던 원주민교회의 장로분과 몇몇 성도들도 참석하여 전통춤과 찬양으로 함께 축하를 해주었다. 피로연 후에 만성적인 영양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물고기 양식에 필요한 민물 치어 구입과 고무채취를 위한 특수용도의 칼을 요청해서 담당자들과 상의 후 지원하였다.

정글원주민사역은 그들의 삶의 질 개선과 이슬람의 영향력 차단이라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여전히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자립을 목표로 원주민지역교회와 지역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 교육, 지역개발, 복음 등의 전인사역을 총체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미얀마 난민의 어려움을 바라보며

미얀마 난민으로 2년째 신장결석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던 바위 흙(Bawi Hum, 35세)형제가 한국의 익명의 후원자분과 이곳 협력교회의 도움아래 지난 8월 23일 신장결석 제거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중이다. 이제는 25세의 아내(Any Par), 5세의 뇌성마비딸(Gloria Bawi)과 세 둘과 한 둘의 두 아들도 부양할 수 있게 되었다.

이곳 말레이시아는 코로나로 인한 이동통제가 대부분 해제되었지만 아직 경기가 완전히 살아나지는 않아 사회적 약자들이 안정된 직장과 수입을 얻기가 쉽지 않다. 미얀마난민 중 기독교도인 친족(Chin)의 집단거주 지역에 있는 CCF(Chin Christian Fellowship)교회에 뉴질랜드 다니엘선교센터와 말레이시아 필마트의 도움을 받아 180가정 분량의 쌀과 식용유를 전달하였다.

지난번 편지에서 소개했던 메탄을 섭취로 시력을 상실한 청년의 재활훈련을 위해서는 말레이시아맹인협회(MAB)에 도움을 구하고 있다. 정부의 추천장이 있어야 재활훈련과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어 기도가 필요하다. 소아대두증을 앓고 있는 아이는 상황이 심각하네 앞으로 여러 차례의 검사와 수술이 필요하다. 간단치 않은 수술과 비용, 오랜 시간의 재활과정이 예상된다(필요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C국 BAM & NGO의 본토화와 그 배경에는

2016년 C국 정부의 가정교회 핍박과 해외단체에 대한 고강도 압박에 대응하는 한편 현지 동역자들의 안정적 교회사역과 훈련, 선교사역을 위해 2017년 1월 2일 북카페 형태의 카페교회와 현지 NGO(愛心慈善)를 두 가정교회와 함께 설립하였다. 만 5년 만에 지난 지금 이들은 정부의 여전한 감시와 역병의 힘겨운 상황에서도 현지법인화, 재정자립, 현지인주도의 전인사역 등 힘겨운 본토화를 이루었다. 외국인등 외부의 간섭이 없는 자치, 자립, 자전하는 교회와 단체로 성장한 것이다.

카페교회와 愛心慈善을 위해 함께 심고 마중물을 부었던 한국 MSI, 한국O, 분당우리, 보배로운, 소담, 금산,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던 여러 전문가 분들(임쌤, 팽쌤, 강쌤), 장학금 전액을 헌금한 딸 하은, 법적인 위험을 감수한 아내 이보배, 기도의 동역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2022년 9월 8일

자라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김은유, 이보배 가정 올림

※ 후원방법

- 동역: 사역에 함께할 기도 동역자, 재정 후원자 & 단체, 장단기 사역자들을 기다립니다.
- 후원: 국민은행 049790-29-000045 (김은유)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본부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전화: 02 455 0261)
- 사역: 사역목적 후원이나 개인선물은 사무실(02 455 0261) 또는 저에게 따로 연락해 주시면 목적에 맞게 사용합니다.
- 패밀리멤버: 매달 오전 원 이상 패밀리멤버로 단체에 후원하시는 분은 일 년에 5권의 서적을 보내드려요. (사무실로 문의)